

0802(화) 이사야 44-48장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

위로의 소식, 새 일에 관한 비전이 선포되었지만,
정작 백성들에게는 허황되고 비현실적인 말 같아 보였습니다.
새로운 통치, 새로운 창조,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된다는데
바벨론은 전혀 망할 기미가 없이 견고하기만 했습니다(47:7-8,10).
선포된 말씀보다 바벨론과 그 신들이 더 현실적이어 보였습니다.

하나님은 반복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. *

<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! >

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을 통해 누가 참 신인지 보여주셨듯이, **

<새로운 출애굽 : 포로 귀환>에 앞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,

권력과 우상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계속하여 일깨우십니다. ***

*43:11-12, 44:6,8, 45:5-6,18,21 **출6:7, 7:5,17, 8:22, 10:2, 14:4,18

***40:12-22,26, 42:5, 44:24, 45:7,12,18 48:13, 51:13,15-16

실제 바벨론이 패망하고 고레스가 진군하던 날(45:1-5),

<이건 또 뭔가? > 이스라엘은 당황하며 두려웠을 것입니다.

“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

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

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

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(44:8)”

그렇습니다.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일입니다(41:21-24, 44:6-7).

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은 **앞으로도** 예언하신 그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.

(48:3, 42:24, 43:8-13, 44:24-28, 45:5-7,18,20-25, 48:5,12-16)

이스라엘은 헛된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신뢰하며

바벨론에서 나가야 합니다(48:17-22).

“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(히11:1)”

<이 눈에 아무증거 아니 뵈어도> 약속을 믿고 전진합니까?

❶ 내 삶에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, 약속들을 되새겨 보십시오.

❷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차 <새 일> 이루실 것 또한 믿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이사야 44-48장